

2020.01.14. 5:28 ... 119



14	'119	3	119	
8	2			201
		2017	2019	
204	167	2941	2694	9.1%
44%		22.2%	1033	578
24		119		12
6000		3		가
		6089	461	783
	94	328		322
)	(343)	39	(148)	(131)
"		1	"	

# 경기북부 119소방안전패트론통한 3대 불법행위 근절 나서

## 올해 다중이용시설 등 6000여개 동 대상 점검 실시

### 신종자유업종 점검대상 포함 '무허가 위험물 단속'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올해에도 '경기북부 119소방안전패트론통'을 통해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인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정차)의 근절에 나선다.

도의 '119소방안전패트론통'은 3대 소방 불법행위의 단속과 도민 의식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전담기구로, 지난 2018년 2월 발대했다.

패트론통 단속 전인 2017년과 단속이 활성화된 2019년의 도내 화재발생 현황을 비교해보면 화재건수는 2,941건에서 2,694건으로 9.1% 감소, 인명피해는 204명에서 167명으로 22.2% 감소, 재산피해는 1,033억 원에서 578억 원으로 44% 감소했다.

올해 경기북부 지역에서 활동할 '경기북부 119소방안전패트론통'은 총

12개 반 24명으로 구성, 다중이용시설이나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6,000여개 동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에 대해 불시·반복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화재안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방탈출카페, 스크린야구장, 키즈카페 등 신종자유업종을 점검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단속 항목에 3대 불법행위 외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추가,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둔 만큼 1월 중에는 판매시설, 운수시설, 영화상영관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유병욱 예방대응과장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안전이 무시되고 나아가 관행처럼 되어버린 3대 불법행위에

대한 안전의식이 개선될 때까지 패트론통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대형화재 참사의 주요원인인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북부 소방안전패트론통은 지난해 총 6,089개동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461개동 783건의 불량행위를 단속했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비상구 관리 소홀 328건,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322건, 불법주·정차 94건, 불법증축 39건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과태료(131건), 조치명령(343건) 및 시·군 기관통보(148건)의 조치를 취했다.

수원/박덕규 기자  
pck@naewoibo.com